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9호 [루게 제24612호] 주체103(2014)년 7월 18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의 성천강 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521
호기업소의 성천강
그물공장과 수지관
직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
치국장인 조선인민
군 차수 황병서 동
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장 한광상
동지, 국방위원회 설
계국장인 특군중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
에서 해당 부분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래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일
군들과 종업원들이 기업소에 어려웠
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영활동정형을 구
체적으로 료해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는 기업소에서 당의
령도밑에 새로 건설
한 현대적인 그물공
장과 수지관직장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
게 벌리고있는데 대
하여 높이 평가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파수업과 수산업,
건설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 절
실히 필요한 그물
과 바줄, 수지관들
을 생산하고있는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은 규모
는 비록 크지 않지

일련안고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였으며 교양마당과 주변환경을
새롭게 일신시킨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생산장성의 열쇠는 종업원들의 사상
정신상태에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
하여 창립된 기업소가 위대한 장군님
의 손길아래 지난 기간 인민경제발
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에 그
물공장과 수지관직장까지 꾸려짐으
로써 기업소가 부강조국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종합공장으로서
의 체모를 갖추었다고 하시면서 지
난해 이곳을 돌아보시던 날을 회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만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라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
금 그물과 바줄, 수지관에 대한 수요
가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에 의거하여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예술선전대공연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지도받게 된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예술선전대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을 안고 무대에 나온 소개자는 전례없는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서도 전선시찰의 길에 계시며 군력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대련합부대 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경의와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예술선전대는 공연무대에 남성중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는다》, 여성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 시랑송 《원수님은 화선에 계신다》, 여성6중창 《인민의 환희》, 트럼페트와 노래 《총성의 대답소리 <알았습니다>》, 토막이 이야기 《훈련장의 두 분대장》, 남성독창과 방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기타5병창 《7.27행진곡》, 시와 이야기 《사회주의불빛과 초병의 눈빛》, 합창 《우리의 총장우에 평화가 있다》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올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며 이른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화선천리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백두산 혁명강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군무생활의 나날을 이어가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의 열렬한 총정의 마음을 감명깊이 펼쳐보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우려는 인민군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신념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도 깨뜨릴수 없다는것을 노래와 시에 담았으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것을 삶의 영예로, 본분으로 여기고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받들어가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갈 철석의 맹세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또한 총잡은 병사가 지켜선 곳은 그 어디나 최전연이고 최전방이기에 순간순간을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원수들의 도발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싸움준비 완성을 위해 군복을 땀으로 적시고있는 대련합부대 장병들의 사상정신적품모를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

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원들이 사상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하시면서 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커다란 감회력과 높은 호소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안의 예술선전대활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본사정지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의 성천강 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그러자면 원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생산과 출하에 이르는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그물과 바줄, 수지관, 편결판들도 생산할수 있게 필요한 설비들을 보장하고 생산건물을 확장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을수 있게 그 질을 더욱 높이고 상품포장도 잘하며 제품전시실을 새로 꾸리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새로 개건한 문화회관은

돌아보시면서 좌석수는 얼마인가, 리용은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물어주시고 회관을 잘 꾸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회관부도에 게시한 직관물들을 보시고 종업원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특히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반제, 반미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총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군사적위협소동은 자멸만을 초래할것이다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은 가리울수 없다

미국이 지난 16일부터 남조선피괴들과 야합하여 조선남해와 동해에서 해상기동을 동반한 《항공기요격훈련》을 벌여놓았다. 여기에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라적집단과 이지스수호함 《키드》호편대가 참가하고있다. 이어 22일부터는 제주도근해에서 일본침략군 해군함선들까지 참가하여 대규모의 해상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하게 된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며 정세로 전정적경로에 몰아가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지금 미국은 저들이 벌여놓은 전쟁소동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가리워보고 갖은 요사를 다 펴고있다. 어윤나팔수들을 내세워 남조선피괴들과의 전쟁소동이 《쌍방을 위한 통상적인 훈련》이기때문에 문제가될것이 없다고 떠드는가 하면 편이 벌어지는 일일남조선생살합동군사훈련을 체제시 수백과 구조를 목적으로 한 《인도주의적전진》으로 묘사하고있다.

미국이 이러한 주장을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들은 지난시간에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전쟁소동을 벌여놓을 때마다 《년제적》이니 뭐니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였다.

하지만 세상이관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훈련이라는것이 조선반도정세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기 위한것이든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공격적전훈련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있다.

미국은 또 그외에 병력과 무장장비를 집중 배치하고있다. 그 첫째로 목표는 우리 공화국이다. 미국은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고 전조선반도를 대륙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삼려고 하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남조선에 특별히 중시하고 이곳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전쟁소동의 회수와 강도를 높이고있다.

미국이 지금 벌여놓고있는 군사훈련도 그 한 기로써 철저히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공격훈련이다. 그것은 이번이 참가하고있는 무장장비들에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조지 워싱턴》호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공격용미사일들과 전략폭격기 《FA-18 EF》, 《FA-18C》, 조기경보기 《E-2C》, 전자전투기 《EA-6B》를 비롯한 70여대의 항공기가 탑재되어있다. 이것들은 작전반경으로 보내 갖추어

있는 무장장비능력으로 보내 다 공격을 위한것이다. 핵항공모함라적집단 《쌍방》을 위해 남조선에 기여했듯이 이번 훈련이 《방어적성격》을 띠고있었다는것을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지금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할 때마다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항공모함라적집단을 들이밀었다. 이것은 순수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공격하기 위한것이였다. 미군부의 고위인물들도 저들의 항공모함집단은 강력한 기동력과 화력타격체계를 갖춘 공격집단이라고 자랑하고있다.

미국이 이러한 타격집단을 동원하여 전쟁소동을 벌이면서 여기에 《방어》를 위한다는, 《인도주의적》이니 뭐니 하는 의의를 띄우는것은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꾀변이다. 실지 그들의 말대로 《방어》나 《인도주의》를 목적으로 한것이라면 그처럼 강력한 타격집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는가.

미국이 벌이고있는 전쟁소동은 철저히 우리 공화국을 섬세타격하기 위한 방법을 숙달하기 위한것이다.

연제간외국의 한 신문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으로 가상해본 《제2차 조선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서 주되는 역할을 하게 될 《조지 워싱턴》호핵항공모함전투집단은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해안선을 남조선부터 수백km 떨어진 곳에 순항비행하여 한때 조선의 중심부임 1차타격을 가할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필리핀, 미얀마의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며 미군정복관들이 사선에 지정해준 조선의 군중공업시설들과 지휘소가 자리잡고있을만 한 지역들을 편이이 폭격을 가할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빠져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소동을 계속 매어달린다면, 마침내 이것은 수지와 과열뿐이다. 미국은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면철회하라

최근에 들어와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빈번히 저지르렀던 군사적위협소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처치는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아니 온 세계가 미제를 진정도발자, 평화와 안정과피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규탄하고있다. 특히야주제사상연구 협회대표단 단장은 미국은 남조선국을 강경하고 반세기이상 조선민족을 분열시킨 기본장본인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조선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정구한 세월을 갈라져 살아온 조선민족의 비극은 하루빨리 끝장나야 한다고 촉구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호전세력파와 함께 대규모적 인침략전쟁소동을 벌이려던 시기를 회상하는데 미국이 남조선호전세력파를 리더로 삼고있는것을 우리는 경악하고있다. 남조선호전세력파를 리더로 삼고있는것을 우리는 경악하고있다. 남조선호전세력파를 리더로 삼고있는것을 우리는 경악하고있다.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장본인

이제라도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며 정세로 전정적경로에 몰아가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미국이 벌이고있는 전쟁소동은 철저히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공격적전훈련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있다.

소련의 역할

미국이 벌이고있는 전쟁소동은 철저히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공격적전훈련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있다.

미국이 벌이고있는 전쟁소동은 철저히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공격적전훈련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있다.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장본인

이제라도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며 정세로 전정적경로에 몰아가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미국이 벌이고있는 전쟁소동은 철저히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공격적전훈련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있다.

미국이 벌이고있는 전쟁소동은 철저히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공격적전훈련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있다.

여러 나라 정당, 인사들 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

세계의 간섭을 배격하고 조선민족 자체의 힘으로, 북남사이에 합의된 방식대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적극 지지한다.

조선전쟁의 교훈

조선전쟁은 전후 수십년간 미국과 대결속에서도 자위적국방력을 배방으로 다져왔으며 미국의 군단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었다.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장본인

이제라도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며 정세로 전정적경로에 몰아가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장본인

이제라도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며 정세로 전정적경로에 몰아가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장본인

이제라도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며 정세로 전정적경로에 몰아가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조선전쟁의 교훈

조선전쟁은 전후 수십년간 미국과 대결속에서도 자위적국방력을 배방으로 다져왔으며 미국의 군단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었다.

조선전쟁의 교훈

조선전쟁은 전후 수십년간 미국과 대결속에서도 자위적국방력을 배방으로 다져왔으며 미국의 군단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었다.

조선전쟁의 교훈

조선전쟁은 전후 수십년간 미국과 대결속에서도 자위적국방력을 배방으로 다져왔으며 미국의 군단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었다.

조선전쟁의 교훈

조선전쟁은 전후 수십년간 미국과 대결속에서도 자위적국방력을 배방으로 다져왔으며 미국의 군단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었다.

조선전쟁의 교훈

조선전쟁은 전후 수십년간 미국과 대결속에서도 자위적국방력을 배방으로 다져왔으며 미국의 군단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었다.

조선전쟁의 교훈

조선전쟁은 전후 수십년간 미국과 대결속에서도 자위적국방력을 배방으로 다져왔으며 미국의 군단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었다.

조선전쟁의 교훈

조선전쟁은 전후 수십년간 미국과 대결속에서도 자위적국방력을 배방으로 다져왔으며 미국의 군단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었다.

불가피한 딸라제국의 멸망

미국이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의의하는 기본수단은 핵무기와 딸라제국이다.

불가피한 딸라제국의 멸망

미국이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의의하는 기본수단은 핵무기와 딸라제국이다.

불가피한 딸라제국의 멸망

미국이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의의하는 기본수단은 핵무기와 딸라제국이다.

불가피한 딸라제국의 멸망

미국이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의의하는 기본수단은 핵무기와 딸라제국이다.

불가피한 딸라제국의 멸망

미국이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의의하는 기본수단은 핵무기와 딸라제국이다.

불가피한 딸라제국의 멸망

미국이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의의하는 기본수단은 핵무기와 딸라제국이다.

불가피한 딸라제국의 멸망

미국이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의의하는 기본수단은 핵무기와 딸라제국이다.